

나주 서원·향교, '지역문화 발전소'로

문화재청 지원 '소나무 학교' 내달 문열어 전통문화 체험·인문학 강좌·콘서트 운영

나주시가 지역내 서원과 향교를 활용하는 문화재사업을 펼친다.
나주시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2014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주향교 활용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지역발전소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 언론, 문화, 행정,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기획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추진단은 최근 나주 목사내아 '금학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추진위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지역 기관단체 연계방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모니

터 요원으로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국비 6000만원)의 규모로 동산대 평생교육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시행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역민과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월례강좌와 전통 의례교육, 전통문화 체험, 예술 콘서트 등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향교의 현대적 가치를 창출해 나주를 전통과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관광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향교·서원 활용사업
문화재청이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던 향교·서원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 교육·문화·관광이 복합된 문화사랑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광주·전남지역은 나주향교를 비롯해 ▲장성 필암서원·봉암서원(문물여무불여장성에서 1박2일) ▲담양 창평향교(예학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구례향교(향교야 놀자) ▲화순 능주향교(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 제례법) ▲화순향교(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무안향교(황토굴 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광주시 광산구 월봉서원(월봉서원이 건네는 선비의 하루) 등 8개소가 선정됐다.



3·1절기념 강진투어 도로사이클대회

25일 강진군 일대에서 열린 '제61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대회'에 참가한 남지일반부와 고등부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6일 여자부 개인도로, 27일 남녀 일반·고등부 개인도로, 28일 순환도로 경기, 3월 1일 동호인 개인도로 경기 순으로 펼쳐진다. <강진군청 제공>

담양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내달 개관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54억 들여 조성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이 담양에 문을 연다.
담양군은 담양을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에 조성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이 건립공사를 마치고 3월 6일 개관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체험관은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이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다.
1층은 로비·교육실·복합카페·정보검색실 등 편의시설로, 2층은 기후 변화 현상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3D영상관으로 꾸며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책 읽는 장성'

장성군이 잇달아 도서관을 건립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옥도서관인 삼계 도서관을 개소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북이 도서관 문을 연다.

자료실 구연 동화실,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다.

장성군은 북이 도서관을 3월 19일 개관할 예정이다. 총 20억원(국비 16억원·군비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북이 도서관은 단층건물(연면적 609㎡) 규모로, 현재 막바지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북이 도서관은 1만권이 넘는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고, 매년 2000권의 책을 확충할 계획이다. 열람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도서관이 문을 열면 북부권 주민들에게 독서공간은 물론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전북

전봉준 체포 집터엔 돌축대만 ...

120주년 맞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유실·훼손 심각 전국 360여 유적지 중 국가 사적 지정 20여건 불과

올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가운데 동학 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150여개소의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조사한 결과 50여건의 유적지가 유실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부 관아는 현재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며 동헌이나 객사 등 당시의 건물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화교 안에는 고부 관아의 터였다는 표시만 있을 뿐 동학농민혁명을 촉발시켰고 동학농민군에 의해 두 차례 점령됐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문조차 없다.
원평 구미관 전투에서 숨진 농민

군 20여명이 잠들어 있는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의 '무명 농민군 묘역'도 봉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
이곳은 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묘역을 조성할 계획이나 아직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수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동학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부하의 밀고로 붙잡힌 순창군 쌍치면의 집은 현재 모두 사라지고 돌축대 등만 일부 남아있다. 이곳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전사관이 들어서 있지만 정작 집터에는 체포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표시석도 설치돼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김개남 장군이 태어난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의 생가도 전혀 보존되지 않고 있다. 농민군이 전주성 점령을 위해 사전에 장악하고 이동로로 이용했던 전주 용머리고개, 농민군과 관군이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전주 안산철봉 전투지 등도 안내판조차 없어 일반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0여개소의 유적지가 있으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5건, 광역 시·도의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5건 남짓에 불과하다. 동학농민 혁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인 역사적 의미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마저 국가사적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정도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재 등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올 관광객 300만명 유치키로

2월말 현재 25% 증가 단체관광객 유치 심혈

순창군이 올해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은 "2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25%가 증가한 4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강천산을 다녀갔고, S트레인을 이용한 관광객도 이미 1000여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기존의 홍보 틀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5월에 예정된 '한국철도 산악연맹 등반대회'를 강천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산악연맹 임원진 초청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군은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

는 등반대회를 유치하면 코레일 관광을 통한 순창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관광과 농가소득을 직결하는 관광코스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순창군 직영농·특산물 직관장을 경유하는 관광상품과 체험관광상품 등 단순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체험 관광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7월에는 '블루베리 체험 관광 열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코스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친환경쌀 2년 연속 부산 학교급식 공급

연제구 16개 초교 150t

남원 친환경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지역 학교급식 쌀로 공급된다.
남원시는 "최근 열린 부산시 연제구청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친환경 전국단위 쌀 품평회에서 남원시 남농 영농조합법인 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단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품평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5개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와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맛과 가격

평가 항목에 투표해 다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남농 영농조합법인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부산시 연제구청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150t이상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서 연간 생산되는 친환경쌀 2000t 가운데 1300t 이상이 전국 150여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국에 친환경농산물 유통망을 확대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일반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시설하우스 햇감자 수확

25일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시설하우스에서 주민들이 겨우내 재배한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남원 덕과면서 3·1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남원시 덕과면에서 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가 열린다.
남원시 덕과면 발전협의회(회장 주성 점령을 위해 사전에 장악하고 이동로로 이용했던 전주 용머리고개, 농민군과 관군이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전주 안산철봉 전투지 등도 안내판조차 없어 일반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0여개소의 유적지가 있으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5건, 광역 시·도의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5건 남짓에 불과하다. 동학농민 혁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인 역사적 의미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마저 국가사적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정도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재 등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 parkks@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94년전인 1919년 4월 3일, 당시 이석기 덕과면장과 주민 1000여명이 식목일을 가장해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헌병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게 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박물관-익산시, 쌍릉 학술조사 협약 체결

국립 전주박물관과 익산시는 지난 24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의 정밀 학술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와 전주박물관은 익산 쌍릉 출토 미공구 유물의 전수조사와 치아, 목관 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주 무령왕릉 출

토 유물들과 비교분석한다.
내년에는 지하물리탐사 및 봉분을 3D 스캔해 쌍릉 내부와 지형을 기록한다.
익산시와 전주박물관은 이를 집대성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학술대회와 특별기획전을 열 계획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고창 여성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창군 여성회관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경력이 단절된 지역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교육과목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조경기능사를 비롯해 한식조리사, 역사술 지도사, POP 예쁜글씨 자격

증, 전통 폐백 지도사, 미술심리 지도사, 네일 아트와 창업이 가능한 홈패션(소품), 규방공예, 손뜨개 과정이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인 경우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강료가 면제된다. 문의(063-560-8085)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순창, '장독대 분양' 28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은 직접 장을 담가 장독대에 보관하는 '장독대 분양'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장독대는 1구좌(중 10kg)당 20만원에 분양하며, 장을 담가 황아리에 숙성시키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
장은 국내산 천일염과 순창에서

생산된 메주콩을 쓰며 전통 방식을 이용해 숙성시킨다.
이를 통해 된장 14kg, 간장 3.6ℓ를 만들 수 있다.
희망자는 순창 장류사업소(063-650-5422)로 신청하면 되며, 장 담그기 행사는 3월 1일 열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